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회차	3차
	일자	2020.12.28. 18:30
	장소	ZOOM 화상회의

간호대학	경영경제대학	사범대학	사회과학대학	약학대학	예술대학	의과대학
○	○	○	○	○	○	○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통일공대	동아리연합회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계
○	○	○	○	○	○	13

참고자료: 중앙감사위원회 회칙, 중앙감사위원장 지원서, 등록금환불 설문조사 가안(집행위)

1. 단위별 보고

간호대학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 구성원 교체완료
경영경제대학	보고사항 없음
사범대학	12월10일에 간식사업 진행 - 16일에 배부 완료
사회과학대학	단위요구안 작성 위해 설문조사로 학우 의견 수렴 집행부 공개모집 완료 62대 총학생회 성폭력 및 2차가해 사건에 대해서 연서명을 인문대와 함께 작성하여 모든 단위에 연대요청서 송부
약학대학	보고사항 없음
예술대학	보고사항 없음
의과대학	보고사항 없음
인문대학	새내기 공지방 개설 목적으로 새터주체 선발 중, 새터진행방식은 논의된 바 없음. 등록금 관련 카드뉴스 게시 완료. 단위요구안 의견수렴 위한 설문조사 중. 사과대와의 공동 성명서 작성 완료했고 연대요청서 송부 완료
자연과학대학	보고사항 없음
통일공대	이번주 31일에 운영위 있을 예정, 단위요구안 취합 예정
동아리연합회	보고사항 없음

2. 보고 안건

1. 총학생회장단 보고

- 단위별 회칙 및 세칙 개정안 취합 12.31까지
- 단위요구안 작성 1.11까지
- '푸앙이' 표절 논란 관련 대전대학교 총학생회에 우리 측 질의 송부: 현황 파악 및 의견 요구

2. 중앙집행위원회 보고

집행위원장단	국·위원회 연간 사업계획 수립 진행 중 타 대학 '푸앙이' 표절 논란 관련 대응 논의 진행 중
교육자치국	온라인 비대면 학사 설문조사, 교양과목 온라인 강의 피드백 진행 중 ZOOM 사용 관련 카드뉴스 업로드 예정(12/30경)

	- 차후 수강신청 관련 카드뉴스 제작 예정(1/18경)
일상복지국	대여사업 정비 진행 중 불법카메라 탐지기기 사용교육 강연자 연락처 확보 완료 및 협의 진행 예정
연대사업국	외부 제휴 상시 협의 중
전략정책국	중대중심 게시판 개편 논의 업체에 회원가입 위한 예비email 추가 등 유지보수 요청 완료
홍보소통국	홈스터디 독려 이벤트 홍보물 제작 및 실무 진행 완료 총학생회 소통창구 내 62대 홍보물 전체 교체작업 진행 중 2021년 중앙대 다이어리 디자인 진행 중 푸앙이 2차 굿즈 배부 일정 관련 학생지원팀 논의 중
회계사무국	국·위원회 예산사용계획 수합 진행 중 전대 돕바사업 환불 대상 명단 파악 및 사무처리 진행 완료

3. 총학생회 산하위원회 보고

문화위원회	게임, OTT 등 온라인 문화 제휴 연락을 위한 준비 중
인권복지위원회	사물함 신청 및 관리요원 선발 진행 중 금번 기숙사 퇴관 대상 무빙워크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
성평등위원회	내부 구성 중
장애인권위원회	내부 구성 중
졸업준비위원회	졸업앨범 입찰공고 게시 제작년도 졸업앨범 미수령자에 대한 추가제작분 배송 완료

인문.정: 교육자치국에서 ZOOM 사용 관련 카드뉴스 업로드 예정이라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린다.

총: 중앙대학교 포탈 아이디로 ZOOM을 로그인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 사용법에 대해서 카드뉴스 발행 하려고 한다.

총: 질의 없으신 걸로 알고, 추후 질의가 있으시더라도 나중에 개인톡으로 질의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다.

3. 의결안건

1.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서기 인준의 건

총: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금차 회의부터 앞으로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회순을 변경하여 서기를 우선으로 인준하고자 한다. 서기에게 의결권과 발언권은 없다. '총학생회 회계사무국장인 전자전기공학부 19학번 김민진을 63대 중앙운영위원회 서기로 인준한다'에 대한 의결 진행해도 괜찮은지? 의결 진행 하도록 하겠다.

의결제목	'총학생회 회계사무국장인 전자전기공학부 19학번 김민진을 63대 중앙운영위원회 서기로 인준한다'					
찬	12	반	0	기권	0	가결

2. 중앙감사위원장 인준의 건

총: 의결안건 진행하도록 하겠다. 중앙감사위원장 지원자님 초대하도록 하겠다. 중앙감사위원장 지원자님 제 목소리가 들리시는지?

중감위원장 지원자: 잘 들린다.

총: 감사하다. 우선 대표자들께서는 질의가 있으실 경우 소속단위와 직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문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대 중앙감사위원장 박준일 지원자님 자기소개와 간단한 지원동기 듣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감위원장 지원자: (전문)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에 현재 재학 중인 박준일이라고 하구요, 중앙감사위원회 2대 위원장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지원 동기라 함은 바로 중앙감사위원회의 설립배경과 방향성이 제가 추구하는 그것과 결을 같이하는 건데요. 입학 후 몇 년 동안 학생회 재정운영이 사실 그렇게 안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자립성이나 안정성은 단순히 사실 이월금이나 사업 규모에 따라서 변동되는 것이기에 몇 가지에서 측면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일반 저학년 학우로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러한 상황적인 측면은 저를 몇 년간 방관자로서 남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군복학 후 솔직히 말해서 이제 학과와는 별개인 상황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조건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고 이번 2020학년도부터는 이제 스스로 이걸 고쳐보고자 해서 학과의 재정관리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제 1년 동안 학교 재정관리직을 수행하면서 가장 중요시했던 것이 무결성인데 이 무결성이 1대 중앙감사위원회의 방향성과 굉장히 유사하다는걸 그때 감사를 수강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과의 기틀을 대충 잡아놓은 지금 조금 더 제 뜻을 좀 더 크게 펼칠 수 있는 자리를 알게 되어서 이렇게 중앙감사위원장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 감사하다. 질의가 있으신 단위는 소속단위를 밝히시고 질의해주시면 된다.

부총: 질의하겠다. 부총학생회장 임규원이고 말씀하셨던 본인이 경험하셨던 재정상의 치명적인 타격이나 실수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점을 본인이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면 좋을지도 같이 말씀해주시면 좋겠다.

중감위원장 지원자: 목도했던 문제점 중에 가장 큰 것은 현금자산관리 시스템이다. 현금거래에 원래 장부가 있어야 정상인데 대부분의 경우에서 현금 장부를 관리를 하지 않고 있었고, 그러다보니 그 과정에서 처음 입금 내역과 나중 출금내역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분히 횡령이 가능했었다. 두 번째로는 다명의 결제 시스템이다. 원래는 일원화된 명의로 관리했어야 하는데 만약에 사업을 여러 가지 부서에서 주치를 하면 각 부서의 장들 혹은 임원들이 개인 사비로 지출하고 이것을 학생회비로 송금을 나중에 해주는 이러한 방식을 이전까지 고수하고 있었다. 우리 학생회에서는. 그래서 이걸 보고나서 인수인계 받을 때 이걸 알게 되고 나서 이것을 고치기 시작했는데, 일단 중앙감사위원장을 맡게 되고 나서 아마 이와 방향성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금자산을 최대한 운용하지 않는 것이 일단 첫 번째가 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다명의 결제 시스템을 일원화된 결제 시스템으로 바뀌서 카드를 중앙으로 바뀌서 원래는 한사람이 관리하게 되는 카드를 차라리 양도를 해서 빌려주고 그 카드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오는 식으로 오프라인 결제를 하면 그렇게 하고, 온라인결제 같은 경우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서 결제를 대행해서 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총: 부총학생회장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부총: 네. 하나만 더 여쭙 봐도 되는지 모르겠다. 중앙감사위원회의 활동이나 위원장님이 추구하는 바가 어쨌든 중앙감사위원회의 범위는 학생자치와 협의와 협력을 통해서 그런 사안을 정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그런 회계의 투명화나 그런 것을 실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기 계신 구성원들을 포함한 학생 대표자와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만약 위원장이 되신다면 위원장의 자리에서 좀 더 학생자치의 투명

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협력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중감위원장 지원자: 일단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다가오는 2021학년과 2020학년도에 코로나 19의 여파로 인해서 학생회비 이월금과 납부금 이런 걸 바탕으로 학생자치가 운영이 되는데 그게 아마 조금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좀 더 촘촘하거나 좀 더 투명한 이런 예산 운영이 필수 불가결적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하고 있지만 가능한지는 인수인계 과정에서 조금 더 확실하게 여쭙볼 예정이고 각 단위에서 차차 재정을 담당하게 되는 분들이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연락처도 곧 전달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미리 연락처를 수집하고 우리끼리 미리 조금 회의를 가진 후 통일화된 양식과 결제 시스템을 좀 더 공적화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을까 싶다. 지금 알기로는 각 학과마다 결제하는 시스템이나 양식이 제각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니 감사하는 진행하는 와중에도 굉장히 의미 없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결제시스템 자체가 누군가가 기한을 올리고 그거를 검토하고 누군가가 승인하고 결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구두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인 것 같다. 그래서 좀 더 공적화 하는 방향으로 미리 합의를 해서 전파를 하고 합의를 할 수 있으면 좀 더 감사 동안이라던가 아니면 평시에서도 더 원활하고 투명한 그런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다.

총: 부총학생회장님 답변이 되셨는지?

부총: 네. 질의 여기까지 하겠다.

총: 다른 대표자분 질의 있으신지? 경경대 부회장님부터 질의해주시겠습니까.

경경.부: 경경대 부회장 백민지입니다. 제출해주신 지원서에 통일된 예산집행양식을 제작해서 필수정보 누락을 방지하겠다고 했는데 양식 안에서 흔히 누락되는 정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어떤 양식을 포함해서 제작함으로써 이를 방지하려고 하는지 궁금하다.

중감위원장 지원자: 이 설명을 위해서 혹시 학생회장님 화면공유권한을 풀어주실 수 있으신지? 화면공유 잠시 진행하겠다. 화면 혹시 보이시는지? 우리 학과 학생회비 운영내역이다. 이 양식은 제가 제작했었고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도 제작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었던 건데 질의 주셨던 게 첫번째로 가장 많이 누락되는 항목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고 하셨는데, 일단 그 부분을 보시면 제일 많이 누락되었던 게 거래되는 부분, 이렇게 제일 많이 누락되어있었고 그리고 최종적인 거래금액만 기재가 되는 경우가 있었고 이 거래금액이 어떻게 해서 산출됐는지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작성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거래항목과 거래수량, 거래단가 그리고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진행했을 때 추가적으로 배송비를 다 감안해서 보시면 엑셀 수식으로 자동으로 나오게끔 이렇게 양식을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를 활용해서 재정 담당하시는 분들과 좀 더 협의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추가하고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삭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싶다. 지금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우리학과에서 제가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는 파일인데, 실제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결제 시스템을 조금 따와서 보통 기한을 넣긴 하는데 담당자, 검토를 하는 데에 재무를 하시는 분을 넣고, 결제는 최종으로 승인하시는 분의 서명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려고 했으나 2020년도가 전부 비대면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직접 서명 받는 것은 무리였고 실시간으로 집행을 건의로 할 때 받는 것은 무리였고 실제로 소급해서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2021학년도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미정인 상황이라서 큰 틀은 이렇게 잡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총: 답변이 되셨는지?

경경.부: 확인했다 감사하다.

총: 인문대학 학생회장님 질의해주시길 바란다.

인문.정: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아까 답변에서 과 그리고 단과대 회계 담당자와 뭔가 협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다고 했는데 혹시 과 재정담당자까지 전부다 혹시 중감위원장이 되신다면 만나보실

계획이 있으신지?

중감위원장 지원자: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 무리가 있지만 단체 카카오톡 방이나 아니면 지금처럼 줌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보고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출 되고 난 후 인수인계과정에서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인문.정: 또 질문 몇 가지 드릴 건데, 위원장 후보자께서는 중앙감사위원회 소통창구가 그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다고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대책방안이 무엇인지도 궁금하다.

중감위원장 지원자: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크게 소통이 원활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1대 중앙감사위원회를 보면, 아무래도 각 담당하시는 사과대면 사과대, 인문대면 인문대, 각각 담당하시는 분이 있게 되고 그거에 가장 큰 문제점은 아무래도 담당하시는 담당의 부재가 제일 크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한다. 담당의 부재와 담당하시는 분의 업무과중이 제일 크지 않나 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조금 문제를 인지를 하고 있는게, 중앙감사위원장과 위원들을 추가모집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모집을 받았다는 것은 아무래도 계속 몇 자리에서 공석이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다. 공석이 발생하면 어쩔 수 없이 있다면 타 단위를 담당하시는 분이나 위원장이 그 업무를 대신할 것이고, 업무가 과중되면 자연스럽게 소통이 조금 부족하게 될 것은 맞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인수인계 과정에서 확실히 말해주겠지만 계속해서 추가모집을 받는 것이 제일 현실적인 것 같고, 그 이후에 있어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체계와 비슷하게끔 해서 이전 담당하시던 분과의 체계를 좀 더 유지해서, 연결해서 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인문. 정: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되는지? 아까 말한 질문의 의도는 별개로 지금 중앙감사위원회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지만 지금 많은 학우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지적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 인식하고 계신지, 대책방안은 어떤 것인지 물어보고 싶다.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질문을 더해보자면 중감위 회칙 제 36조 감사방법을 보면 감사대상은 28일 이내에 중앙감사위원회에 관련 제출해야한다고 나와 있다. 근데 보통 학생회는 한 학기 활동을 할 때 예산안을 최고 의결기구인 단학대회에서 인준을 받아서 활동을 하는데, 그리고 입학대회는 개강후 45일 이내에 개최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보통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보통 감사 관련 제출 날짜가 입학대회보다 더 앞선 부분이 많다. 즉, 최고 의결기구의 인준도 받지 않는 인문대의 예산안이 중감위의 감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단과대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나중에 중감위원장이 된다면 회칙 개정에 어떠한 앞장을 서실지 궁금하다.

중감위원장 지원자: 첫 번째로 소통창구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점에서 사죄 드린다. 일단 평학우분과 그리고 중앙감사위원회와의 소통은 이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게 맞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반학우 분들의 이목을 끌만한 활동이 없지 않았나 싶다. 사실상 1대 중앙감사위원회에서 적발했었던 회계상의 문제중 하나는 솔직히 크게 이슈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이유가 그 부분이 학과에 전달이 되거나 패널티가 확실히 부족한 게 사실이었고, 일반학우분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인지를 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중앙감사위원회가 사실 어느 기관의 상위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패널티를 주기가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회계적인 문제점에 있어서 확실하게 일반 학우분들에게 전달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나 이런 것을 요구하는데 있어서 기존보다는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단편적인 예시로 저번대의 총학생회와 총학생회 소속이었던 성평등위원회가 크게 대립 했었는데, 학우분들의 큰 지지를 얻었었던 이유는 총학생회의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총학생회와 반대되는 총학생회와 대립되는 의견을 낼 수 있었던 강단이 있었던 것 같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중앙감사위원회에서도 조금 더 이런 문제점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평학우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이러한 소통적인 문제에서 조금 더 이점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 죄송한데 혹시 다시 말씀해주실 수 있는지?

인문.정: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중감위에 제출해야하는 일자와 단과대 최고 의결 기구인 단학대회의 일정에 차이가 있는 건데, 제출일자가 단학대회보다 먼저 있기 때문에 의결기구의 인준도 받지 않은 예산안을 중감위에 감사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중감위원장이 되신다면 단과대 회칙을 다 확인하신 후에 중감위 회칙을 개선하실 생각이 있는지 여쭙보고 싶다.

중감위원장 지원자: 우리 학과 내에서도 학생회가 인준을 첫 번째 개강총회가 열리지 못해서 받지 못했고 예산안과 실제 예산안의 집행을 개강총회보다 먼저 진행하게 되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다보니 당연히도 중앙감사위원회의 예산안 감사가 조금 더 먼저 진행되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회계를 담당할 때도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왔고, 그래서 만약 2대 중앙감사위원장으로 취임을 하게 된다면, 모든 전 학과의 사정을 고려하기에는 어렵겠지만 혹시라도 그러한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충분히 고려할만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리고 획일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진행하기보다, 예산안이 준비되었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 받으면 언제든지 감사를 진행할 수 있게끔 상시적인 감사 시스템을 만드는 게 오히려 좀 더 투명한 방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총: 추가질의 있으신 대표자님 있으신지? 없으신 걸로 알고 지원자분은 저에게 호스트 넘겨주시고 퇴장해주시면 된다. 감사하고 퇴장하셔도 좋다.

중감위원장 지원자: 감사하다.

부총: 수고 많으셨다.

총: 우리끼리 논의 할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의견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의결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다.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부 박준일 지원자를 2대 중앙감사위원장으로 인준한다.'에 대해 의결 진행하도록 하겠다.

의결제목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부 박준일 지원자를 2대 중앙감사위원장으로 인준한다.'					
찬	13	반	0	기권	0	가결

(통일공대 보고안건 중 입장 - 본 의결부터 참여)

4. 논의 안건

1. 총학생회 2차가해 사건 관련, 62대 총학생회장 및 2차 가해 지목자 3인에 대한 논의

- 단위별 의견 공유와 수렴
- 사안에 대한 중운위 대처 논의

총: 논의안건 1번 총학생회 2차가해 사건 관련, 62대 총학생회장 및 2차 가해 지목자 3인에 대한 논의 진행하도록 하겠다. 안건지 보이시는지? 단위별 의견 공유와 수렴 진행하도록 하겠다.

간호.비대위: 비대위원장단 및 비대위원회 구성 자체가 금일부로 교체되었는데 전대 비대위원장님께서 의견 수렴에 대해서 인계한 바가 없어서 들은 게 없다. 그래서 공유가 불가능할 것 같다.

총: 경영경제대학 의견 있으신지?

경영.정: 경영경제대학 논의 결과, 우선 2차가해 지목인 및 총학생회장에 관한 파면이나 사과의 요청 같은 경우, 지목인에 대해서는 증거란 게 없기 때문에 이분들을 가해자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사과 요청 및 파면보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2차 가해에 대한 해결과정에 있어서 생겼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입장문에 넣어서 그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의견이 모아졌다.

총: 네 사범대학

사범.정: 사범대 운영위원회 회의 중에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대표자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아직 중운위에
서 방향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사범대에서 선불리 다루는 게 또 다른 가해가 생길 우려를 하기 때문에 논의
방향과 연대요청서에 대한 내용 정리와, 피해자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을 나누고 싶다는 의견이다.

총: 네 사회과학대학

사과.정: 이건 조금 다른 논의이지만 저희단위랑 인문대에서 발행한 성명서랑은 중운위와의 지금 논의랑은 별
개의 문제로 생각해주셔도 될 것 같다. 저희단위와 인문대의 성명서는 저희가 빠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이라서 작성해서 함께 낸 것이고 그 연대요청과 중운위 차원에서의 논의랑은 조금 단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단위에서는 중운위 차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성명서를
작성해서 내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다.

총: 네 약학대학

약대.정: 상황파악이 제대로 잘 안됐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의견없음으로 제출하겠다.

총: 알겠다. 다음 예술대학

예술.정: 저희도 단과대 내부 구성이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러한 이 얘기를 내부적으로 나눠볼 시간이 없어서
의견없음으로 내겠다.

총: 네 감사하다. 의과대학

의과.정: 저희도 아직 파악이 잘 안 된 걸로 판단 되서 의견없음으로 하겠다.

총: 네 인문대학

인문.정: 인문대학은 계속해서 이야기한대로 중운위 차원에서 규탄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생각한다. 62대 총학
생회장은 저희가 파악한 나름의 근거를 얘기를 하자면 62대 총학생회장은 중앙대학교 학생 대표자들 손으로
만든 반성폭력 회칙을 준수하지 않았고 가해자 중심적인 해결을 하였다. 그리고 가해 지목인 3인은 반성폭력
회칙에 나온 정의대로 직접적인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다. 때문에 규탄과 사과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62대 총학생회장과 총학생회의 임기는 끝났지만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한
번 말하지만 규탄과 사과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재발방지 대책 역시 학생자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총: 네 자연과학대학

자과.정: 자연과학대학 역시 단위별 의견공유가 아직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의견없음으로 하겠다.

총: 네 통일공대

통공.정: 통일공대는 단위별 대표자들의 의견이 다양했고 이를 하나로 모으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나로 모은
의견이 공대 대표의 의견이라고 표현되기에는 아직 논리적 비약이 많다고 판단해서 의결을 진행하지 못했다.
아직 의견 없음이라 하겠다.

총: 네 동아리연합회

동연.정: 동아리 운영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결과 입장을 정리하는데 성공했다. 2차가해ttt와 총학 그리고 성
평위의 입장문을 숙지한 상태에서 본 입장을 작성할 것, 중앙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써 동아리연합회는 전체
중앙인을 대표해서 건설적인 논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하는데 전체 동의를 하였다. 먼저 전 총학생회장의
명예탄핵에 관해서 전 총학이 2차 가해에 당시 태만했으며 비협조적이었고 징계에 소홀했기 때문에 명예탄
핵을 한다가 중론인데, 사건초반에 피해자가 공론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비공식적인 대화가 오갔고 총학은 피
해자 중심적 해결이라는 명목 하에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얼추 알 수 있다. 물론 불미스러운 결과에
비해 부족해보이지만 이를 위한 노력은 충분히 있었고 선부른 탄핵소추는 이러한 노력을 평가절하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생각했다. 결과적으로 전 총학은 미흡할지언정 부족하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

다. 총학은 사태에 소홀했는가에 대해서도 따져보자면 tft에서 2차가해 1인을 제외한 3인에 대한 혐의를 밝혀 내지 못했다. 즉 심증만으로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으며 정황만으로는 죄를 단정 지을 수 없다. 중운위는 학생사회의 대표자로서 절차와 법칙을 지켜나가며 나아가야 할 것이다. 총학은 할 수 있는 선에서 처리를 다했고, 확증이 없이 이 이상의 징계를 더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말하고 싶다. 2차가해 책임을 가해자 1인에게 모두 덮어 씌우고 사안을 덮을 시도가 있었다고 의견이 있었지만 오히려 2차가해 3인에 대해서 논의가 끝나지 않는 상황에서 전총학생회장에 대한 명예적 축출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물론 앞으로 tft를 연장하거나 해당사항에 대해서 또다시 조사를 들어가서 추가적 정황을 추가할 수 있을 테지만 조사가 더 이상 의미가 있을까 라는 말도 있었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선택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명예탄핵이라는 문구도 회칙 상에 존재하지 않는 말이다. 총학생회장의 명예탄핵이 사건해결과 어떤 연관이 있으며, 이로 하여금 중앙대학교에 반성폭력 문화에 어떠한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실질적인 징계 또한 만약에 우리가 중운위에서 통과시킨다고 해도 전학대회에서 판가름이 날 것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냐 라는게 전체동운위에서 나왔던 의견이다.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명예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총: 단위별 의견 다 나왔고, 지금 나온 의견을 토대로 이 사안에 대해서 중운위가 한 목소리를 어떻게 낼 것이며 어떤식의 방향성을 수립해서 사안을 해결을 할지 논의하면 좋을 것 같다.

인문.정: 혹시 질문이 있는데,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총: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2차 회의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우선 2차가해 지목자 3인에 대해서 어떠한 증거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학생, 중앙대학교 모두를 대표하는 최고 기구에서 가해 지목자 3인이 정말 가해를 했는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 2차 가해를 했는지 증거도 없을 뿐더러 그를 확실하게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저희 중운위 전체의 입장으로 어떤 입장문을 표명하거나 어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2차지목자에 대한 2차가해의 우려도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부총: 각자의 의견에 대해 물어보신 건지?

인문.정: 총학생회장님의 의견이 총학생회를 대표한다면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부총: 가해지목인으로 된 3인에 대해서 저 또한 뭔가 증거나 이런 거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아직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만 저번회의에서도 말했듯이 전대에서 이런 성희롱 사건 그리고 2차가해 사건이 일어났고 이게 엄연히 학생자치단체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은 우리가 명백히 하고, 아까 경경대에서 말씀하신 입장 중 일부 동의하는 바는 앞으로 63대 중운위와 지금 새롭게 출발하고 있는 학생자치 단체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하고 싶다.

총: 답변이 되셨는지?

인문.정: 네

총: 앞으로 중운위가 어떤 식의 스탠스를 잡을지 다 같이 논의하겠다. 대표자분들 자유롭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부총: 방금 한 얘기를 이어서 한다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 가해지목자 3인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잘못을 가리고 또 법리적 판단을 하는 데는 더 많은 논의와 증거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이것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데 대해서는, 그것에 대한 중운위의 의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를 좀 진행해야겠습니다만 그것과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는 구분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건이 학생자치단체 내에서 일어났고 그것을 해결하는데 어떠한 과정이 잘못되었으며 앞으로 학생자치단체 내에서 이런 성관련 사건, 성적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문화나 아니면 관련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떻게 나아

가야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은 실제로 이 사건에 해당되는 인원의 잘못을 가리는 것과는 별개와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경경.정: 경경대 학생회장 발언해도 되는지?

총: 네

경경.정: 우선 인문대 학생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성평등위원회의 회칙을 저도 살펴봤는데 가해 지목인에 대해서 만약 성폭력사건으로 치부가 된다면 가해자로 판단을 하여서 처리를 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 근데 이 부분과 지금 이 2차가해 지목자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피해자분께서 직접적으로 그 가해 지목인들한테 직접적으로 들은 상황이라면 2차 가해를 들은 상황이라면, 그 가해 지목인들을 가해자라고 봐야하지만 이게 만약에 어디선가 전해 들었고 이것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는다면 저는 성평등 회칙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경대 단운위들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총학생회장 및 2차가해지목인에 대한 처벌은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부총학생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프로세스 그리고 지난날의 과정에서 잘못은 짚고 넘어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총: 네. 자유롭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대표자분들이 말씀해주신걸 조금 정리해보자면, 앞으로의 우리 학생자치차원에서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할지, 그리고 지난날의 과오를 다시 한번 되짚어서 학우분들께 알리는 입장문을 표명하는 데에는 다들 동의를 하는 것 같다. 맞는지?

부총: 일단 우리가 지금 이 정도로 의견이 수렴되는 것은 다들 말씀하신 의견을 종합해봤을 때는 이 2차가해인으로 지목된 3인에 대한 판단이 우리가 아직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다 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각자 말씀을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만약에 지목된 인원에 대한 더 구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에 대한 의견과, 그렇게 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중운위에서 진행해야할지 그런 식의 의견도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다.

사과.정: 사과대 발언하겠다. 앞서서 굉장히 많은 대표자분들의 논의가 나왔는데 그중 피해자 중심으로 해결하려는 총학생회의 노력이 보였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게 피해자의 목소리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피해자가 아닌 저희가 어떤 근거로 62대 총학생회의 사건처리 프로세스가 부족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들고, 해당 사건이 사법기구의 힘을 빌리는게 아니라 학생자치 내에서 학생자치 진상규명 tft로 이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해당사건이 성폭행이나 성추행 사건보다 물증을 더 확보하기 힘든 성희롱 사건임을 확인해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어떤 증거물을 더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성희롱 사건의 특징 상 물증을 수집하기 어려운데 계속 물증을 찾으려고 그것에 매몰 되는 것이 과연 이 사건에 해결하는 방법이 맞나 의문이 든다.

총: 네

사과.정: 더불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 회의 때도 말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의 인권규약이나 앞으로의 어떻게 하겠다 라는 대응에 대해서 의견을 내시는 것을 대부분의 대표자분들이 말씀하신 것 같다. 저는 우선 당장 발생한 성희롱 사건이 중앙대학교 구성원 대부분이 다 알고 있을 만큼 이번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서 진상규명 tft도 만들어졌고 학운위에서 대표자분들께 62대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고 이것에 대해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음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리고 연서명을 통해서 62대 임기 말에 증명이 되었는데 성희롱 사건 피해자가 성희롱사건 피해자라고 외치는 상황에서도 이미 발생한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앞으로의 인권규약을 만들어봤자 어떤 학내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성희롱 피해를 목소리 내서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과연 조성이 될지 의문이 든다.

부총: 방금 사과대에서 말씀하신 의견이 다른 중운위원의 의견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하려면, 지난날의 과오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 분들도 비슷한 의견을 내준 것 같다. 다만 이것을 인원을 특정하는 방향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 사건 자체를 주목하는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것에 의견이 갈린다. 우리가 만약에 전자를 택한다 했을 때는, 전자를

택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아직 인원을 특정할 수 있는 중운위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근거나 아니면 자료 혹은 배경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중운위원들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판단을 하기 위한 과정을 어떻게 설정을 하면 되겠느냐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그런 여러 범위를 고려해서 저희가 의견을 나눠보면 되지 않을까 싶다.

총: 네 인문대학 학생회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인문.정: 비슷한 맥락인데 사과대 학생회장님이 말씀해주셨듯이 피해 학우분께서는 지속적으로 이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고 62대 총학생회는 분명 가해자 중심적인 해결을 했다고 외쳐온 상황이다. 그리고 중앙대학교 반성폭력 회칙을 봐도 사건 해결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것은 피해자 중심적 해결이다. 말로 가해진 2차 가해가 증거가 남아있을 것이라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서 그거에 더 이상 특정하지 않기 위해 중앙대학교 반성폭력 회칙에서 가해지목인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명확한 지적 없이 또 명확한 규탄 없이 앞으로의 프로세스만을 얘기했을 때 그게 과연 그 프로세스가 신뢰감을 얻을지는 잘 모르겠고, 프로세스만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한다면 인문대학은 기권이나 반대의 의견을 표시할 수밖에 없다.

총: 네

사과.정: 추가적으로 저는 대표자분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중앙운영위원회의 차원에서의 어떠한 성명서를 내는 것은 이제 규탄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앞으로의 반성폭력 기조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성명서를 내는 것은 동의한다. 규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부총학생회장님이 말씀하는 것은 지목된 3인을 제외하면 규탄에 대해서도 대표자분들이 동의하시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신 것 같아서 정리가 안 된 느낌이 든다.

부총: 제가 혼란을 불렀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 말을 정리하면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고, 해결과정에서 잘못이 있었고, 이것이 학생자치단체 내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었다 라는데에 대해서는 많은 중운위원분들의 동의가 있는 것 같고, 사실 자체를 지적함으로써 과거에 잘못된 일을 짚고 넘어가느냐 아니면 이것의 관련자에 대한 의견을 남김으로써 그렇게 하느냐 이 단계에서 의견이 지금 갈리는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희가 그중에 어떤 방법을 조율해서 택하는지를 논의하면 될 것 같다.

총: 다른 대표자분들 자유롭게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간호.비대위: 근데 여쭙보고 싶은 게 말씀해주신 것처럼 미해결에 대한 문제 처리 방식에 대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것에는 거의 모든 대표자님들이 동의한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 외에 지목된 사람들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갈린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는지?

부총: 네

간호.비대위: 그럼 일단 첫 번째 건을 그렇게 진행되는 거고 그리고 그 외의 것을 의견 논의를 하면 되는 건지? 그니까 만약에 뒤에 것도 의견이 통일이 되면 두 가지 다 진행이 되는 건지?

부총: 가해자에 대한 내용을 저희입장에 포함을 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도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두 개를 같이 논의해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니까 전자의 입장문의 내용을 확정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방금 후자로 말씀하신 가해지목자 3인에 대한 의견까지 중운위가 남기고 넘어갈 것이냐가 확립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간호.비대위: 그럼 지금 논의 자체는 후자에 대한 논의만 이루어지면 된다는 것인지? 그걸 추가로 하나 마냐에 대해서?

부총: 그거를 포함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걸로 진행하고 있다.

간호.비대위: 그러면 후자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면 의견을 덧붙이고 싶은 게, 지금 갈리는 게 증거에 대한 불충분으로 인해서 처벌을 할 수 없다, 우리가 의견을 낼 수 없다와 피해자 중심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이해를 했는데 피해자 중심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 게 회칙으로 되어있는 부분이고 맞는 말이고 윤리이지만 그게 무조건적으로 피해자의 말을 증거로 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거에 대한 증거 확보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증거 확보과정에 대해서 논의하면 좋을 것 같다.

총: 네. 증거확보 방식이 진상규명 tft를 설립을 한다던지 아니면 관련된 분들을 만나서 미팅을 진행한다던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그런 것들 자유롭게 말씀해 달라.

간호.비대위: 결론은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 거니까 그 증거만 확보가 되면 사실 다 통일될 의견이다. 증거에 따라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증거 확보에 논의를 하고자 말씀을 드렸다.

총: 네

부총: 그 문제인 것 같다. 일단 이 사건 자체에 대한 증거는 tft에서 사건을 조사하는 상황에서 이미 나올 것이 다 나왔고 다만 tft를 설립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2차가해 지목자 3인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았고 지금 이것이 새롭게 등장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3인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창구나 아니면 사안을 파악할 수 있는 창구가 어떤 것이 있는지 논의하면 좋을 것 같다.

통공.정: 공대의견 제시해도 되는지?

총: 네

통공.정: 지금 조금 입장정리가 늦어졌는데 공대가 아니라 개인적 의견이지만, 어떤 명확한 물증이 없는데 피해자 중심의 해결을 위해서 2차 가해에 대한 언급을 중운위 측에서 한다면 그 역시도 모순이 되지 않을까 싶다.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성희롱 사건 특성상 증거가 잘 남지 않고 이런 사건은 비단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적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하는데 저희가 성명서나 규탄서를 냈을 시에 그걸 볼 학우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유로 이걸 확실시하고 중운위는 이런 의견을 냈는가 묻는다면 또 다른 꼬리의 꼬리를 물어서 논리적 문제점이 생길 꺼라 생각을 하고 또 그에 따라 저희의 입장문이 증거 불충분한 상태로 이 지목자 3인에 대해서 또 다른 새로운 피해자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반대하고 싶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이런 증거 수집이나 이런 과정들을 이번 회의에서 명확시해야 한다는 바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다시 그에 따른 해결책을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총: 네

경경.정: 경경대 추가 발언 하겠습니다.

총: 네

경경.정: 우선적으로 성희롱 사건이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게 가장 크다. 전에도 말했듯이 만약에 피해자분이 직접적으로 2차가해 내용을 들은 것이면 피해자 말만으로도 어느 정도 증거라고 판단을 해서 이분들을 가해 지목자분들을 가해자로 판단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 피해자분 또한 전해들은 내용이라던가 확실하지 않은 내용이라면 이 상황에서 가해 지목인을 가해자로 보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파악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 같다. 아까 공대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상황파악 자체가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총학생회장 및 2차 가해 지목자에 대한 논의는 63대에서는 하지 않고 작년 62대에서 이 일처리를 했을 때 발생했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그걸 조사해서 명문화 시켜서 공개를 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해결방안이나 이런 것을 구축해서 공개하는 것이 더 옳은 방향이 아닐까 생각한다.

총: 네. 다른 대표자분들 의견 있으신지?

부총: 일단은 지금 논의가 돌고 있는 것이 저희가 2차가해 3인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지금 중운위 내부에서 아는 게 없다. 우리가 2차가해 지목자 3인에 대한 규탄이나 사과 요구로 넘어갈 것인가를 판단하려면 이

일에 대해서도 중운위 내부에 명확한 정보가 공유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어떤 물증적 증거나 법리적 증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2차가해 지목자로 3인이 지목된 경위나 혹은 그것의 배경이 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그것에 대한 판단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필요하다면 어떤 창구를 통해 진행을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도 저희가 수립해서, 거기까지 나아갈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어떤 방법을 선불리 택하기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지금 논의가 돌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누구의 증언을 들어보는 일일수도 있고 전체적인 배경을 파악해보는 일일수도 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란다.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계신 분이라면 소상히 알려 주시는 게 전체 중운위가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에 좋지 않을까 한다.

총: 부총학생회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을 정리하자면 전반적으로 중운위분들이 해당 사안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해당 사안을 좀 더 깊고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이 사안에 대한 정보들을 어떠한 창구를 통해 받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창구를 진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진행을 해야 하는데 어떠한 창구를 통해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예술.정: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런 사안을 진행하기 위해서 진상규명 tft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예술대학의 입장이라고 선불리 말하기는 그렇고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저도 이 사안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없는 사람 중 한명이라 생각을 해서 어떤 의견을 내고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히 방금 말한 진상규명 tft 혹은 그것과 비슷한 것이라도 중운위 내에서 좀 더 정보공유가 절실히 되어야지 이걸 저도 학생 대표자로서 좀 의견 표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이 많아서 답답한 상황이라 죄송스럽기도 하다.

총: 그러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증거확보도 증거 확보인데 그 전에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해당사안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는 게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한 이해도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어떠한 방식을 채택하면 좋을지에 대한 논의만 금차 회의에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간호.비대위: 우선적으로 저는 피해자분과 연락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총: 네

간호.비대위: 그리고 나서 피해자분께 어떤 방향을 원하시는 건지 여쭙보고 tft 구성을 통해 증거를 모으시는 것을 원하시면 그런 방향으로 가면 될 것 같고 계속 같은 얘기들을 하시는데 증거를 모으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인 것 같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피해자분께 연락을 하고 그다음에 그분과 대화를 통해 어떤 방향을 원하시는 건지 여쭙보고 원하신다면 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화로 한 번 더 물어본 다음에 tft 구성을 하던 하면 될 것 같다. 저번 중운위에서도 tft를 진행을 했었지만 그 당시와는 다른 논점인 것 같고 이 조사해야하는 방향이 그때 당시에는 내부 가해자, 2차 가해자 지목이었고 이제 또 안 된 사람 3인에 대해서 증거가 없으니까 지금 처벌을 못 한 건데 그3인에 대한 증거는 추가적으로 구해야하니까 따로 tft를 구성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경경.정: 경경대 발언하겠다.

총:네

경경.정: 저도 간호대 비대위원장님의 말에 의견에 동의를 한다. 하지만 한 가지 의견을 내자면 62대 총학생회장 및 2차 가해 지목자 3인에 관한 것은 우선적으로 증거도 불충분하고 관련해서 피해자분께서 원하시는 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금 별개로 두고 총학생회장 2차 가해 사건에 대한 처리에 문제점은 빠르게 저희가 파악해서 그거에 대한 입장문은 별개로 공개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 자체를 우리도 인지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앞으로 하겠다 라는 것을

학우분들께 보여줘야 학우분들도 저희가 만약에 피해자분께서 원해서 이 가해 지목자에 대한 논의를 다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과정에 의문점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총: 네. 그러면 조금 정리를 하자면 해당사안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피해자분과 연락을 해서 피해자분이 원하는 방향을 듣고 한 번 더 차기 중운위 회의에서 논의하면 좋을 것 같다. 경경대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동일하게 이와 별개로 지난 62대 총학생회가 해당사안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어떤 잘못이 있는지, 어떠한게 미흡하고 어떠한게 부족했는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입장문을 먼저 표명하자는 말씀이 맞는지?

경경.정: 맞다

총: 이 의견에 대해서 대표자분들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간호.비대위: 여쭙보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 문제 처리 방식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삼는 입장을 갖는다면 그게 이제 총학생회가 일을 부적절하게 했다는 초점이 되는 것인지,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 제도적인 측면에서 부족함을 입장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

총: 네

부총: 이게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것이 제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도가 있는데 안 지켜서 사안이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정리를 한다면 말씀하신 것 중에는 전자로 하는 것이 맞겠다. 제 생각은 그렇다.

경경.정: 경경대 회장 발언하겠다.

총: 네

경경.정: 저는 부총학생회장님의 의견과 조금 반대 되는 게 우선적으로 전대 학생회에서 일어났던 일처리 미흡에 대한 언급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혹시나 일처리 과정에 있어서 제도적인 문제로 인해서 더 진행되지 못했던 사안이 있는지 저희가 추가적으로 알아본 다음에 만약에 있다면 그부분도 언급하면서 바꿔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란 생각이 든다.

총: 네. 제가 봤을 때 금차 회의에서는 결정이 안날 것 같고 다만 중운위 회의가 끝이 나고 차기 중운위 회의 전까지 저희 총학생회장단이 피해자분께 연락드려서 해당사안을 어떤 식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여쭙고 차기 중운위에서 그를 바탕으로 한번 재논의 하면 좋겠다. 또한 총학생회장단도 62대 총학생회에서 관련 사안을 처리하는데 미흡했거나 부족했던 것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무엇인지를 저희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중운위분들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또 차기 중운위 회의 때 논의를 하면 더 원활한 논의를 할 수 있을지 생각이 든다. 이에 대한 의견 있으신지?

통공.정: 피해자분께 연락을 드리고 다음 중운위 때 같이 재논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 단위별로 단운위에서 의논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또 일주일의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차라리 아예 피해자분과 의논을 마치는 대로 카톡 공지방이든 문서를 올려주시면 그 주 단운위에서 바로 단대별로 의견 수렴을 하고 아까 의견 없음이 많은 것 같아서 확실히 의견 하나씩 가져온 후에 다시 중운위에서 논의하는 게 어떨까 싶다. 당장 중운위에서 단대별로 의견이 취합되지도 않을 것 같고 총학에서도 피해자분과 원활하게 연락해서 문서화 시키는 것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어떨지 여쭙보고 싶다.

총: 차차기 회의 때 하자는 말씀이신지?

통공.정: 네 대신 그때는 단대별로 의견 없음이 아니라 원활히 의견을 나눠보고 하나씩 의견을 취합해서 와야 회의가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거라 생각한다.

총: 네 감사하다 다들 동의하시나요?

간호.비대위: 제가 저번에 중운위를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의견을 수렴해오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이 가해자로 지목된 3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단운위에서 해서 가져오라고 하셨던 거 아니가요?

총: 다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호.비대위: 의견을 단운위별로 수렴을 해서 가져 오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 안에서 가해자 지목 3인에 대해서 어떻게 할건지에 대한 의견을 가져오라고 한 게 아니었나요?

총: 맞다. 그 전반적인 내용 전부 다.

간호.비대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제약된 상황 안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거니까 단운위에서 의견을 수합해서 가져오는 게 당연히 필요한 건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분께 어떻게 해결하시는 것을 원하는지 여쭙보고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의논해 나갈지에 대해 의논하는 거니까 단운위의 의견이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중운위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미루는 것보다는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총: 통일공대 회장님께서서는 단운위 회의가 필요하다고 하셨고 간호대 비대위원장님께서서는 구지 단운위까지 안내려가고 중운위 내에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셨다.

간호.비대위: tft 구성원으로 들어가는 데에 있어서는 단운위의 의견이 필요하겠지만 tft를 꾸리는 데에 대해서는 단운위 의견이 필요할지 모르겠다.

총: 대표자분들 관련해서 의견주시기 바란다.

부총: 차차기 중운위 회의면 11일인데 조금 늦다고 생각한다. 사안이 계속 뭔가 결론이 나오지 않고 계속 연기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단 공대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위 의견을 수렴하시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꼭 차기 중운위 회의인 4일에 다시 재개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수 있는 날짜를 찾거나, 아니면 4일에 진행을 하고 단운위의 의견 수합 기간을 조정하거나 이런 방안을 논의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각자 의견을 내주면 좋을 것 같다.

경경.정: 피해자분과 이후에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피해자분이 이 사건의 해결을 원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에 대한 내용일 텐데, 만약에 그것에 대한 결론이 나온다면 저희는 길게 고민하지 않고 중운위 내에서 논의만으로도 tft를 꾸리거나 안 꾸리거나에 대한 논의는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따라서 차기 회의 때 진행해도 좋을 것 같다.

총: 넵

예술.정: 예술대학도 동의한다.

총: 네 감사하다. 대표자분들 의사표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범.정: 사범대 동의한다.

자과.정: 자연대 동의한다.

의과.정: 의과대학도 동의한다.

동연.정: 동아리연합회 동의한다.

통공.정: 공대도 부총학생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때까지 미뤄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동의한다.

부총: 그럼 지금 대부분 다음 회의 때 재개하자는 의견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하고 저희 회장단에서 피해자분과 연락이나 대화, 상황 파악을 하는 등은 실시간으로 공유 해 드리는 쪽으로 가면 될지?

총: 네. 그럼 차기 중운위 때 논의를 재개 하겠다.

경경.정: 추가 의견내도 될지?

총: 네

경경.정: 사건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을 총학차원에서 조사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더불어 저희가 단운위 내에서도 논의를 진행한 다음에 차기 회의 때 관련 내용을 말씀 드려도 될지 궁금하다.

총: 어떤 내용 말씀이신지?

경경.정: 사건 처리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단운위 차원에서도 조사하고 싶다.

총: 네

부총: 사건 처리 과정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이미 지난번에 진행한 진상규명 tft에서 해당 문제점이나 그 과정 문제가 지적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한번 훑아보시면 될 것 같다.

경경.정: 감사하다.

총: 오프더 레코드로 개인적으로 62대 총학생회가 해당사항을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규명하고 한 번 더 조사한다고 한들 진상규명 tft에서 더 발전된 의견이 나올까 의구심이 든다. 그래서 올해 진행된 tft에서 발행한 입장문을 한번 보시고 62대 총학생회 대처 관련해서 단운위에서 논의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부총: 해당 입장문 파일은 회의가 끝나는 대로 자료를 찾아서 독방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다. 한번씩 확인해주시길 바란다.

총: 해당 안건은 차기 중운위 회의에서 재논의 하는 것으로 하겠다. 논의안건 2번으로 넘어가겠다.

2. 2학기 등록금 환불 관련 논의

- 논의 프로세스 관련 단위별 의견 공유
- 등록금 환불 관련 여론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진행 방식 및 내용

총: 논의 안건2번, 2학기 등록금 환불 관련 논의다. 논의 프로세스, 등록금 환불 논의 프로세스 관련 공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호대학부터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간호.비대위: 간호대학 위1번 안건과 마찬가지로 인계받은 바 없어서 의견공유 불가하다.

총: 네. 경영경제대학

경경.정: 경영대 단운위 논의 결과, 우선적으로 설문조사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고 학년대표 장학금이나 그런게 만약에 제외되는 부분이 있다면 사전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그다음에 계절학기 환불에 관해서도 같이 빠르게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 1차 등록금 환불에 대한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서 관련하여서 명문화된 자료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총:네. 사범대학

사범.정: 사범대학 논의 결과 말씀드리겠다. 일단 과정에서 전대 총학 카드뉴스 내용이 좀 압축적이다 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 내용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하고 정확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고 등록금의 몇 퍼센트까지 환불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보거나 그런 게 설문조사 안에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설문조사 안에 환불에 대한 퍼센티지가 3~5%, 8%, 10% 이런 식으로 포함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아까 올려주신 설문조사 안에 포함되어있는 것을 확인 했고, 아까 경영대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하는 바이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이게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설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환불이라는 단어에 대한 의견도 있었는데 환불이라는 단어보다 반환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의견도 있었다. 이것은 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다.

총: 네 감사하다. 사회과학대학

사과.정: 우선 우리 단위에서는 등록금 환불 협의회에 관련해서 2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이나왔다. 구글 폼을 통해서 1차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1차 등록금협의 하고 그다음에 1차적으로 이루어졌던 학교의 입장에 대해서 학우분들께 공유한 다음에 2차 등록금협의 순서를 거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리고 1차 등록금 협의에서 우리가 제시하는 퍼센트에 대해서 학교 본부 측에서 그건 너무 많다는 의견을 주면 관련해서, 관련해서 학교에서 주는 자료들, 그러니까 적립금 내역이나 아니면 등록금 사용처

등 학교본부가 돈이 없다 말하는 그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받아서 검증할 수 있는 카드뉴스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성적 장학금 비율이나 저번에는 특별장학금이라는 명칭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그거 말고 등록금 반환이라는 명칭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총: 네 다음 약학대학

약학.정: 우리도 논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예결산 자료가 정확히 주어지지 않아서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크게 진행된 논의가 없었다.

총: 네 다음 예술대학

예술.정: 단과대별로 등록금이 상이한데, 예술대 같은 경우에는 예술대 특성상 등록금이 실기수업이나 그런 곳에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 싶고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받아보고 싶다는 내용이 있었다.

총: 네 다음 의과대학

의과.정: 우리는 일단 설문조사를 통해 단과대 내에 학우들의 의견을 좀더 세세하게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1학기 때 등록금 반환 관련해서 협의를 많은 학우들이 잘 모르고 있고, 실제로 잘 알지 못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좀더 많은 학우들이 보다 정보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총: 네 감사하다. 인문대학

인문.정: 인문대학은 등록금 반환에 관련해서 일단은 학우들이 많은 공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서 뭔가 구체적인 결과를 내는 것도 괜찮다고 판단을 하였다. 그래서 총학생회에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을 좀더 홍보를 강화해서 뭔가 표본을 많이 보완하는 것을 얘기를 했고 최대한 빠르게 등록금 관련된 문제를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라는 얘기가 나왔다. 그래서 인문대 운영위원회 입장을 최대한 정리하면 4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말해도 되는지?

총: 네

인문.정: 1. 성적장학금 감면없이 등록금 반환의 이름으로 실납부액 6프로 이상의 금액을 반환받는다. 2. 등록금 환불 협의체의 정기적 운영과 협의내용 공개. 3. 계절학기 등록금 반환 4. 학생들과의 간담회, 그러니까 비대면 학사운영이라던지 등록금 반환 관련된 간담회를 개최. 그래서 총 4가지로 요약이 되어서 아마 인문대 차원에 4개조 요구안을 다음 회의쯤 중운위에 전달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걸 중운위에서 인문대의 요구안으로 참고만 하면 좋을 것 같다. 이걸 수정이 될 수 있다. 인문대는 뭔가 자체적으로 등록금에 대해서 뭔가 환기시킬 수 있는 캠페인을 할 예정이다.

총: 네 자연과학대학

자연.비: 우리 자과대에서는 우선 단과대별로 등록금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서 사용되어서 이렇게 책정되었는지 사용처를 분명히 밝혀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6퍼센트 정도 특별 장학금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하셨는데 그 퍼센티지가 정해진 기준을 더 많은 학우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총: 네 통일공대

통공.정: 우선 우리는 지난학기 반환비율 퍼센티지를 측정할 때, 측정된 이유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도 가리지 않고 명확하게 공개를 해야한다 라고 의견이 모아졌다. 우리가 우려하는 바는 만약 설문조사 표본이 저조할 시에 우리의 의견이 학교 측에 전달되는 과정에 있어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도 있다고 판단해서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홍보한다고 한들 표본이 적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중운위 차원에서 의견을 미리 만들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프로세스는 일단 이 정도에서 하고 추가적인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다.

총: 네. 동아리연합회

동연.정: 동아리연합회는 단과대도 아니고 동아리 차원에서 등록금 환불에 관련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논의를 했었는데 논의결과 프로세스 설립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총: 네 감사하다. 단운위별로 좋은 의견 많이 내주셔서 감사하다.

부총: 아까 어느 단과대인지 기억은 안나는데 용어 정립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단과대가 있었다. 환불대신 반환이라는 용어를 쓰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주신 단과대가 있었는데, 일단 우리가 환불이라는 단어를 택한 데에는 다른 게 아니고 환불에 금액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총학생회에서 사용하고 있다. 지금 중운위 내에서 어떤 단어가 적합한지 논의해서 앞으로 그 단어로 계속 등록금을 돌려받는 것을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어떨까 한다.

총: 네. 우선 논의 전에 개인적 생각을 말하자면 계절학기 환불을 같이 요구하는 것은 시기상조 아닐까 싶다. 우리가 사실상 이제 환불 즉 반환을 요구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가장 큰 이유가 온라인 수업의 질 하락, 교내시설 미 이용 등이 있겠다. 우리가 온라인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어서 수업의 질이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등록금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 계절학기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절학기 환불을 요구를 하는 것은 우리가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계절학기 환불 건은 계절학기가 모두 끝난 뒤에 따로 요구하면 좋을 것 같다는 개인의 의견이 있다. 그리고 내역공개도 우리가 등록금협약에 들어갔을 때, 상호신뢰가 전제 되었을 때 공개할 수 있는 내역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어떠한 내역인지는 우리도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학우분들께 공개할 수 있는 자료도 있겠고 이것은 나중에 등록금 협약을 들어갔을 때, 받아본 자료에 근거해서 재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표본 확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일, 빠르면 내일이 될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설문조사를 시행하면 단운위별로 게시글 공유 부탁드립니다. 빠른 대처, 우리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설문조사의 기한을 일주일정도로 잡고, 설문조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등록금 환불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생각이 든다.

부총: 여튼, 지금 등록금 환불에 대한 여론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 빨리 우리가 내용을 확정해서 설문을 진행해버리는 쪽이 나을 것 같다. 그 과정에서 단과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다.

인문.정: 혹시 질문 하나 해도 되는지?

총: 네

인문.정: 1학기 여름 계절학기에 대한 등록금 반환은 논의된 적은 없는지?

총: 없다.

인문.정: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것은 여름 계절학기를 우선적으로 얘기한 것이고, 겨울 계절학기는 끝난 다음에 한다는 총학생회장님의 말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뭔가 그래도 2학기 등록금 반환이 이루어질 때 겨울 계절학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얘기라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차원에서 말한 것이다.

총: 네. 알겠다. 사실, 등록금 협의를 요구를 하고 등록금 협의회가 개최가 되었을 때는 계절학기가 거의 끝나칠 무렵이 될 것 같다. 계절학기 환불에 관련해서 또 진행하겠다. 그러면 이제 인문대학 학생회장님은 여름 계절학기 환불건도 같이 다뤄야 한다 라는 의견 주셨다. 네 그래서 조금 정리 하자면 우선 큰 틀로 보았을 때, 내일부터 설문조사를 시행해서 일주일동안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고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바로 등록금 환불 협의체에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다. 전체적인 틀은 그렇게 가져가고, 설문조사 내에 있는 항목에 계절학기 건을 포함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 같고, 환불이라는 단어를 쓸지 반환이라는 단어를 쓸지에 대한 사안도 함께 논의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에 대해 대표자분들,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주시기 바란다.

간호.비대위: 우선적으로 용어의 경우에는 환불이 맞는 것 같다. 용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환불은 '이미 지불한 돈을 되돌려줌'이고 반환은 '빌리거나 차지했던 것을 되돌려줌'이기 때문에 환불이라는 표현이 더 적

절한 것 같다.

예술.정: 환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동의하고 계절학기도 포함시키는 것에 동의한다.

사과.정: 사과대도 환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동의하고 계절학기 등록금 반환 필요하다고 생각이다.

자연.비: 자연대도 사과대 뜻에 동의한다.

의과.정: 의과대학도 환불이라는 용어랑 계절학기 포함시키는 것에 동의한다.

경경.부: 경경대도 환불이라는 용어 사용에 동의한다.

인문.정: 인문대도 환불이라는 용어 사용에 동의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등록금 게시물에도 환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총: 네 감사하다.

통공.정: 공대도 환불이라는 용어 사용에 동의하고, 계절학기 포함여부는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일단 보류하겠다.

총: 네.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명칭은 등록금 환불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중운위 회의가 끝나는 대로 가안 올려드린 것들 설문조사화 해서 이따가 중운위에 공유해드리겠다. 그러면 지금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학우분들에게 배포하는 것으로 하고, 그 배포할 때 설문조사는 이전에 올려드린 2학기 등록금 환불 관련 학생 인식 조사도 있고 더불어서 계절학기 품도 함께 만들어서 두 가지 품을 배포하는 것으로 하겠다. 괜찮으신지?

인문.정: 그럼 두 가지 품이라는 게 링크가 따로따로 되어있는 건지?

총: 맞다.

인문.정: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번에 진행하는 것이 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링크가 두 개면 아무래도 학우분들이 2개 다 하시기에는 불편하다는 생각이 든다. 한 페이지의 링크를 만들고 또 한 페이지의 링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 저도 그 부분에 일부분 동의를 하고, 다만 계절학기 참가자가 적기 때문에, 대상자가 아예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링크를 사용하자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계절학기를 수강하지 않으신 분이 계절학기 관련된 설문조사를 응답하는 것도 굉장히 모순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절학기 관련된 설문조사 진행을 하였을 때 항목에 본인이 계절학기를 수강했는지 안했는지 인증 여부를 받아볼 수도 있다. 그래야 설문조사의 신뢰도가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인문.정: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간다. 감사하다.

총: 네 감사하다.

부총: 큰 틀에서는 구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링크를 따로 하는 게 효율적일지 아니면 챕터를 구분해서 계절학기는 선택을 안 해도 넘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지 실무적으로 내부에서 논의를 해보겠다.

총: 그럼 등록금 환불 논의에 대해서는 이 정도 에서 끝마쳐도 좋을지?

인문.정: 정말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다. 못 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설문조사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총: 일단 즉각적으로 중운위 회의가 끝나고, 바로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 내일부터 일주일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날짜로 따지면 29일부터 5일까지가 되겠다. 설문조사 기한을 더 늘리면 좋겠지만, 일단 환불 관련 논의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단과대 학생회단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면 표본 확보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그러면 이정도로 하겠다.

5. 기타 안건

1. 2021 다이어리 배부 관련

- 수량 조사를 위한 인원 파악 - 비대면 학기 내 다이어리 배부(배송) 관련 의견공유

총: 2021년 다이어리 현재 제작중이다. 중앙대학교 안성캠 문화위원회, 중앙대학교 서울캠 인권복지위원회, 홍보소통국 이 세 단위가 현재 2021년 다이어리를 제작하고 있다. 다이어리를 발주를 하려면 수량조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회장단 분들은 작년 2020년 신입생 인원을 파악해주시면 감사하겠다. 현재 우리가 논의를 해야 할 게 만약에 1학기에도 비대면 학사 운영이 진행된다면, 그 다이어리를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인문.정: 아는 바에 의하면 작년 신입생의 경우에 배송이 간 것으로 알고 있다. 혹시 인문대만 간건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단과대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신입생의 경우에는 합격증과 같이 배송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다. 혹시 단과대는 어땠는지 모르겠다.

총: 제가 알기로는 단과대별로 웰컴기프트라고 발송을 했는데 웰컴기프트에 다이어리가 포함된 단과대도 있고 포함되지 않은 단과대도 있다.

인문.정: 새내기에 한해서는 올해도 사실 입학식이 비대면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니까 다이어리 같은 경우에는 새내기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배부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학년의 경우에는 뭔가 과실에 비치해서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작년에 인문대학 학생회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를 받아서 발송을 해주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그러한 방식을 활용하면 어떨까 싶다.

총: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제 2021년에도 웰컴기프트를 발송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웰컴기프트가 총장님 주관 하에 발송된다고 하면 웰컴기프트 항목에 다이어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을 하도록 하겠다. 아니면 웰컴기프트백이 발송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단과대학별로 신입생들 대상으로 착불로 배송을 시킨다던지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다. 일단 웰컴기프트 진행여부를 일단 추후로 미루고 우선 수량조사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부총: 인복위원장이요 요청 하신 게 있는데, 수량조사를 하실 때, 작년도에 단과대별로 다이어리를 수령하신 후에 배송이 되지 않고 재고로 남은 분량을 어림잡아서 짐작을 해서 같이 보내주시면 이번에는 최대한 잉여 재고가 남지 않는 방향으로 개수를 주문하려고 하니까 해당사항도 함께 조사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자과.비대위: 질문이 있는데, 작년 다이어리 배부는 한꺼번에 전체 단위별로 다이어리가 배부가 된게 아니라, 단위별로 택배로 간 단위도 있고 아닌 단위도 있다는 말씀이신지?

총: 맞다.

자과.비대위: 그건 혹시 단과대 내에서 결정된 사안인지 아니면 다른 방안으로 결정된 사안인지?

총: 웰컴기프트백 발송 결정이 늦어져서 발송을 하겠다 라고 결정하기 전에 신입생분들 대상으로 다이어리를 배포한 단위도 있고, 시기의 문제 때문에 어떤 단과대에는 웰컴기프트에 다이어리가 포함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

부총: 학교에서 다이어리를 보내겠다고 통보한 것이 단과대에서 이미 신입생들에게 다이어리를 보내버린 이후의 일인 곳이 있어서 그 단위의 경우에는 보내지 않았고, 여튼 전체적으로는 똑같이 다이어리를 배송하려는 안으로 진행하려고 했었다.

자연.비: 네 감사하다.

간호.비대위: 간호대 질문 있는데, 부학생회장님께서 인원 잉여 고려해서 조사해서 보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알기로는 전체 재학생한테 줄수가 없어서 단과대별로 총인원을 조사한 다음에 그 비율을 따져서 다이어리를 나눠줬다. 근데 그럼에도 잉여 잔고를 조사해서 보내줘야 하는지?

부총: 그 경우는 작년도에 다이어리를 배부하고 각 학생회실에 잉여로 남아있는 잔고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아마 그때도 그런 사안을 다 고려해서 다이어리를 배분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고가 많이 남아서 이번에도 같은 상황일 것이다. 그래서 그 분량에서 남은 분량까지 빼서 계산을 해야 이번에는 적절한 수량으로 배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간호.비대위: 아마 작년에 재고가 많이 남았던 단대들이 아마 신입생 그니까 원래 다이어리를 다 단대별로 나눠주고 나서 신입생을 보내준 데는 웰컴기프트에 포함이 되지 않았고 신입생에게 보내줘야 하는 단대는 신입생 우선으로 다이어리를 보내주겠다고 총장님이 다이어리를 회수해가셔서 신입생 분량은 다시 가져가고 남은 2,3,4학년 대상의 다이어리를 남겨둔 상태였는데 그거를 배분 안한 단대가 있어서 그게 남은걸로 알고 있다.

부총: 맞다.

간호.비대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잉여로 봐야할지 만약에 가져가게 된다면 배송을 해야하는 상황이니까..

부총: 그러면 판단을 하실 때, 차후에 다이어리를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배송할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면 기존과 똑같이 보내주시면 되고, 혹은 그 과정을 거치지 않겠다고 하시는 단위는 작년에 남은 재고부분까지 빼서 보내주시면 그 이후에 보내주신 수량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다. 여튼, 단위별로 판단을 해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수량을 보내주면 그것에 맞춰서 제작을 하겠다.

인문.정: 언제까지 보내드리면 되는지?

총: 이번 주 내로 보내주시면 된다.

사과.정: 사과대 질문 있는데, 그럼 신입생을 위한 수량과 재학생을 위한 수량 이렇게 따로따로 보내드리면 되는 것인가?

총: 그렇다. 보통 관리상 신입생 기준으로 발주를 넣었던 것 같다. 그래도 충분한 재고가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사과.정: 알겠다.

경경.정: 경경대 질문해도 되는 것인지?

총: 된다.

경경.정: 올해 초에 배부되었던 2020년 다이어리가 학생회실에 재고가 남아있는데 이게 단과대 차원에서 재고 처리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알려주실수 있는지?

부총: 폐기 방안을 물어보시는 건지?

경경.정: 그렇다.

간호.비대위: 간호대학 같은 경우에는 전부 버렸다. 그냥 폐기장 가지고가서 다 버렸다.

경경.정: 그게 단과대 차원에서 다 버려도 되는 것인지?

간호.비대위: 우리 때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알아서 버리라고 하셔서 알아서 버렸다.

인문.정: 인문대학은 2020년이 지나기 전에는 버리면 안 된다고 학교 측에서 학내노동자 어머니께서 말씀해주셔서 학내 어머니께서 따로 폐기하는 곳을 아신다고 해서 거기서 알아서 폐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학내 노동자 어머니께 저희는 폐기처분해주신다고 해주셔서 알겠다고 했다.

총: 감사하다.

경경.정: 알겠다.

총: 그래도 2020년 다이어리니까 신년이 되고 난 뒤에 처리 하는 게 어떨까 싶다. 단과대학별로 알아서 폐기 처분 하면 된다. 2021 다이어리를 제작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다. 관련해서 단과대학별로 정보를 취합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중운위 회의 끝나고 통방을 통해서 전파 드리도록 하겠다. 준비한 안건은 끝이다. 혹시 추가적으로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는지?

인문.정: 아까 등록금하면서 얘기를 못했는데 그냥 건의 사항이라 총학생회 내부에서 한번 논의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다. 회의 끝나는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다른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총학생회 내부에서 외로 tft를 구성해서 뭔가 학우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듣거나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예결산 내용에 대해서도 학우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tft를 혹시 지금 논의 하자는 건 아니고 꾸려나갈 생각이 있는지 총학생회 내부에서 논의를 해 봐 주실 수 있을까 라는 요청을 드린다.

총: 이건 논의를 진행해봐야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일단 지금 설문조사라는 라는 창구를 통해서 학우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학우 분들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tft를 구성하고 하는 것이 조금 시기적으로 많이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총학생회 내부에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인문.정: 감사하다.

부총: 중운위의 논의와 판단을 원칙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차후에 의견수렴을 위한 다양한 창구와 방안을 논의해보겠다.

총: 감사하다. 추가의견 없는 것으로 하고 중앙운영위원회 3차 회의를 마치겠다. 차기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는 1월 4일에 ZOOM으로 진행하겠다.

회의를 폐회합니다.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63대 중앙운영위원회